

요동과 한반도 청동기시대 무덤 연구의 과제

이청규(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요동과 한반도 청동기시대 무덤 연구의 과제¹⁾

이청규(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목 차〉

- | | |
|----------------------|-----------------------|
| I. 머리말 | 2. II기 |
| II. 개별과 군집 무덤에 대한 논의 | 3. III기 |
| 1. 개별무덤에 대한 논의 | IV.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 |
| 2. 군집무덤에 대한 논의 | V. 맺음말 |
| III. 遼東과 한반도 무덤의 교류 | |
| 1. I기 | |

I. 머리말

단위무덤의 고고학 자료는 크게 매장공간의 구조물과 부장유물로 구성된다. 매장공간은 무덤을 구성하는 필수요소이지만, 부장유물은 없는 경우도 많다. 매장공간은 다시 시신을 직접 안치하는 시설과 이를 둘러싼 묘역과 상석 등이 부가되기도 한다.

이들 무덤자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당대 인구집단과 관련된 정보는 장송의례 등의 신앙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당시 사회의 성격과 관련한 것이다. 무덤자료를 통해 사회를 밝힐 수 있는 수준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그 하위 수준은 단위 무덤, 중위수준은 무덤 다수로 이루어진 무덤 유적, 그리고 상위 수준은 일정 지역공간에 분포한 다수의 유적군이다.

이들 무덤자료를 토대로 논의할 수 있는 주제를 정리하면 1) 개인의 신분과 지위, 2) 단위 집단 구성원의 계층화 수준 그리고 3) 다수집단 간의 네트워크와 등급화가 있다. 그동안 남한의 연구자들이 청동기시대의 남한 사회에 대해서 시도했던 설명들을 앞서 제시한 수준별로 각각의 자료를 근거로 정리하고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이 발표문은 다음의 논문 중 관련된 내용을 추려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일부 중복계재의 내용이 있음을 양해 바란다.

이청규, 2011.09, 「요동과 한반도 청동기문화의 변천과 상호교류」, 『한국고대사논총』 63, 한국고대사학회.

이청규, 2010.12, 「청동기시대 사회 성격에 대한 논의-남한에서의 고고학적 접근」, 《고고학지》 16집. 국립중앙박물관.

이러한 논의가 일정시기에 공간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편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통시적인 접근이다. 개인과 단위집단, 그리고 집단 네트워크간의 관계에 대한 통시적인 변천과정을 살펴 봄으로써 일정한 지역범위내 사회의 발전과정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동기시대에 한반도와 요동지역은 비파형동검의 분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동일 문화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단 청동유물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무덤을 보아도 양 지역 간에 유사점이 많다. 그러나 남한의 고고학계는 형식분류와 편년 자체에 집중하고, 양 지역간의 관계와 교류에 대한 논의가 단편적이거나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잘 알려졌듯이 양 지역은 고조선 혹은 예맥과 관련하여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고고학자체로서 밝혀야 할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통시적인 사회발전과정에 대한 설명은 역사특수적인 관점과 사회일반론적인 관점이 있는바, 전자는 문헌기록에 적시된 촌, 읍락과 국과 관련된 논의라고 한다면 후자는 마르크스주의와 신진화론과 관련된 불평등 혹은 복합계층사회, 노예제사회 혹은 chiefdoms와 관련된 논의가 있다. 이들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고고학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지 정리하고, 역시 그 쟁점으로 무엇이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II. 개별과 군집 무덤에 대한 논의

무덤의 양식 혹은 墓型은 기본적으로 무덤의 구조를 標識로 하여 구분하고 이름을 붙인다. 무덤의 구조는 지상에 드러난 墓標 시설과 지하의 매장주체 시설로 구분되는데, 지석묘와 大石蓋墓는 전자, 석관묘, 목관묘, 토광묘 등은 후자를 표지로 하여 붙인 이름이다. 무덤의 立地 혹은 墓域 시설을 표지로 삼아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굴묘와 積石墓가 바로 그것이다. 이 무덤들의 양식은 각기 다른 이름이 붙더라도 동일한 입지, 묘역, 구조의 속성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동굴묘나 적석묘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단위무덤은 석관묘, 토광묘가 될 수 있으며, 지석묘나 大石蓋墓의 경우 적석묘처럼 적석묘역을 갖춘 예가 있는 것이다.

1. 개별무덤에 대한 논의

집자리는 다수의 인원이 공동소유 사용하는 시설물인 것과 달리 청동기시대 남한지역의 무덤은 그 대부분이 망자가 다수 묻힌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개인의 단독 무덤이다. 따라서

각각의 무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이다. 그러나 요동지역의 남단에서 한 묘역에 다수의 무덤이 있고 각 개별무덤에 10-20인의 인골이 함께 부장된 다인장의 적석묘가 성행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동과 서북한지역에 널리 축조되는 석봉묘 혹은 탁자식 지석묘의 경우 다수의 인골이 묻힌 다인장 무덤이라는 주장이 있다(宮本一夫 2000). 그렇다고 한다면 한 묘광의 구조 특히 부장유물은 개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정의 단위혈연집단 전 구성원에 해당하는 것임을 주의하고 논의해야 한다.

단위무덤의 묻힌 사람의 무덤시설과 부장유물을 근거로 각 피장자가 어떠한 신분의 사람인지, 그리고 등급화가 가능하고 불평등한 사회인지가 중요한 논의의 과제가 된다. 두말할 것 없이 인골자료를 통하여 성별 연령 등의 체질학적 정보가 제시될 때 묻힌 사람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도 의미가 있는 신상정보가 제공된다. 요서지역에 하가점하층문화의 수백여기 무덤 대부분에 보존상태가 양호한 인골이 남아 있는 대전자 유적이 바로 좋은 사례인바(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8), 그와 유사한 사례가 한반도의 청동기시대 무덤 사례에서는 많지 않다. 남한지역에서 인골이 발견된 사례는 진주 남강의 대평동, 제천 황석리, 그리고 대구 달성 평촌리 등의 예가 있을 뿐이다. 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 무덤 주인공에 대해 성별, 연령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신분과 지위 등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무덤 주인공의 지위에 대해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판정하는 기준이 무덤의 시설규모와 부장유물의 질과 양이다. 무덤구조와 부장유물의 상호관계는 규모나 양을 따질 때 정비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주지하다시피 요동과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는 대형의 지석묘에서 그 규모에 비해 유난히 부장유물이 적은 사실에 대해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전자는 직접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다수의 많은 노동력이 동원된 것이지만 후자는 소수의 전문적 장인에 의해 원료가 취득 제작 조달된 산물이다.

바꾸어 말하면 무덤 규모는 일정하나 부장유물에 질적이거나 양적으로 차이가 있는 경우, 무덤 규모는 크게 다르지만 부장유물에는 차이가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 그리고 무덤 규모와 부장유물이 정비례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장유물과 무덤시설은 각각 다른 차원에서 설명해야 한다.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는 다수의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권위 혹은 위세와 고도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장인의 제작과 이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장유물 중에서 석기와 청동기는 또한 그 제작과정이나 전문성에 큰 차이가 있어 이를 부장한 사람의 신분은 물론 그가 속하는 사회경제적 상태를 각기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은 이들 무덤시설을 축조하는 데에 무덤에 묻힌 당사자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소속된 집단의 구성원들이 동원된다는 당연한 사실이다. 여기서 집단이라고 할 때 가족 구성원, 단위집단, 농업공동체, 혹은 지역집단 등 여러 수준이 있을 것이다. 이들 여러 수준의 집단 중 어느 집단이 무덤 축조와 제사에 참여하는지에 따라 죽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판가름된다.

아울러 이들 집단 구성원이 무덤을 축조하게 된 동인이 강제적인 것인가 혹은 자발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에 따라서 공동협력체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인지 개인적 실력자에 의해 강제력이 발동되는 사회인지 그 집단의 사회적 성격이 달라진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식묘 집단을 기본적으로 전자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그 종류와 용도, 그리고 그 상징성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은 피장자가 담당한 대내적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동기시대에 남한의 무덤에 부장되는 유물을 살펴보면 무기로서 동검과 석검, 석촉, 장식품으로서 곡옥과 관옥, 식기 혹은 저장기로서 홍도 등이 있다. 각각의 대표하는 기종을 최소한으로 선택하여 부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요하구역의 청동기시대 무덤에 부장되는 유물의 조합에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발굴조사된 요동지역의 본계 신성자나 서풍 동구 유적의 석관묘군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미송리형 단지를 기본으로 하여, 방추차, 반월형석도, 석부가 주로 부장된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鐵嶺市博物館 2011). 그리고 일부의 석관묘 혹은 대석개묘에서 비파형동검을 부장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요하구역에서 기원전 2천년기 이전에 신석기시대는 물론 청동기시대 초기에 각종 생산공구가 부장되거나 제의와 관련된 옥기가 집중 부장된 것과 비교가 된다. 이들 무덤유적의 부장품은 군사적 성격을 강조하지 않는 대신 당시 사회가 식량생산에 치중하거나 종교행위를 반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요동지역에 있어서도 무기가 부장되기에 앞서 기원전 2천년 전기 중반 이전에 이미 마성자의 동굴무덤에서 보듯이 다량의 토기와 함께 생산공구가 부장된 예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기원전 1천년기에 접어들어서도 앞서 서풍 동구의 예에서 보듯이 무기가 전혀 부장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다(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鐵嶺市博物館 2011).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일부 무덤에 한정하여 마연토기 단지와 함께 발견되는 부장품은 화살촉과 마제석검의 무기 위주인 것이다.

각설하고 이들 부장유물 중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무기이다. 동검이건 석검이건 무기가 부장되었다는 사실은 당대에 집단 간의 무력적 갈등이 고조됨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정황 속에서 집단을 통솔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도구를 부장하여 군사적 성격을 강조한 셈이다.

부장유물의 양적 수준이 어떻든 중국동북지역-한반도에 걸쳐 무기가 부장되는 것은 기원전 1천년기에 들어와서이다. 요서지역에서는 위영자 혹은 하가점상층문화와 십이대영자문화, 요동지역에서는 이른바 신성자문화 혹은 쌍방문화의 단계에 비파형동검이 부장된다. 마제석검은 거의 부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이 시기에 비파형동검이 부장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마제석검이 부장되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 지석묘에 부장된 유물 중 청동단검과 마제석검은 소유상태와 조달과정에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청동검에는 상당수가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재가공한 것이지만 석검에는 마모흔이 없고 형식 자체가 비실용적인 것이 많다. 따라서 동검은 본인이 위세용으로 소유하거나 실제 사용하였던 무기일 가능성이 있지만, 석검은 대다수가 생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작해서 조달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무덤에 주로 부장되는 것은 석검이고 동검은 예외적인 것인 바, 청동기시대 무덤은 집단 구성원의 사자에 대한 예우와 조달하여 부장하고자 하는 의지에 중점을 두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석검은 동검처럼 고도의 기술과 재정적인 후원을 갖춘 전문장인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무덤시설처럼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 축조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1-2점 정도 부장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더욱 그러한 바, 피장자의 직계 혹은 친족이나 혈연 집단의 의지와 능력으로도 조달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마제석검을 부장한 무덤이라 하더라도 그 무덤의 주인공이 인정받는 지위와 실력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석검이 부장된 무덤이 전체 무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역 혹은 무덤군 별로 일정하지 않지만 매우 낮은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어느 지석묘 집단의 경우 20-30여기 중에 1-2기가 부장되는 사실로 보아 이들 구성원간의 등급화, 나아가 계층화의 지표로 삼을 수 있고, 부장하지 않은 사람과 지위상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신분은 그렇게 우월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부장유물의 차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영문 2002, 배진성 2007).

부장유물을 통해서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무덤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은 신분과 위계화와 관련된다. 여러 연구자들이 동검과 석검 등의 부장유물의 숫자와 종류를 따져 등급화하고 그것이 신분과 계급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등급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딱바로 신분, 계급과 대응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요서지역의 소흑석구 무덤군에서 다종다양한 유물이 풍부하게 부장된 수습기의 무덤 사례가 있어 이를 등급화하고, 각각 일정 신분에 대응하는 작업을 한 예가 있다. 소흑구석구 무덤에서는 청동기로 예기, 무기, 생산공구, 차마구, 장식품이 있다. 보고자는 이 유적의 무덤을 예기, 차마구, 무기, 생산공구, 장식품 모두 부장한 무덤을 1등급, 1등급 중 예기가 탈락한 무덤을

2등급, 2등급 중 차마구, 무기가 탈락한 무덤을 3등급, 3등급 중 무기가 탈락한 무덤을 4등급, 그리고 전혀 청동기가 부장되지 않는 상당수의 무덤을 5등급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그리고 1등급은 수령계층, 2등급은 무사계층, 3-4등급 이하를 평민 계층으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설명 방식을 고려하면 한반도의 동검 석검을 부장한 무덤의 사례는 모두 3-4등급의 평민이 되는 셈이 된다(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外 2009, 이청규 2010). 물론 요서지역과 한반도의 고고학적 맥락이 당연히 다르므로 이를 막바로 대응하여 비교할 수 없지만 양 지역간의 거시적인 맥락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한편 필자는 청동기시대부터 초기철기시대에 걸쳐 다뉴경을 부장한 무덤의 사례를 들어 이를 일정집단의 우두머리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것은 동검보다는 동경이 적어도 한반도 초기철기시대에 수장급 표지유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분명히 아산 남성리, 함평 초포리, 화순 대곡리의 사례로 보듯이 1급의 우두머리 무덤에서는 다량의 청동기와 함께 다뉴경을 복수로 부장하였다. 그리고 동경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위세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이청규 2000).

이에 대해서는 세가지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첫째 그 우두머리가 관장하는 집단의 공간적 범위와 구조에 대한 것이고(이희준 2011) 두 번째는 동경을 부장한 무덤 중에는 다른 유물이 부장되지 않은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경이나 부분경의 사례가 있어 이를 일괄하여 우두머리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이다. 세 번째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일본열도에 걸쳐 각각 동경에 대한 위세품으로서의 인식의 차이가 있어 이를 일괄하여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2. 군집무덤에 대한 논의

무덤은 개별적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일정 구역에 군집을 이루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다수가 묻힌 무덤은 1인 1묘의 경우 무덤시설 혹은 묘광의 숫자가 곧 묻힌 사람이지만, 1인 다인묘의 경우 단일무덤 자체가 군집묘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요동반도의 적석총 혹은 서북한지역의 탁자식 지석묘가 바로 그러하다.

무엇보다 이들 무덤의 축조연대가 얼마간 지속되는지, 그리고 그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무덤에 근접한 거리 내의 마을유적과 어떻게 대응되는지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당시 사회상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무덤군의 시간적인 폭이 길면 길수록 무덤 숫자는 많아진다. 한편 작은 마을 보다는 큰 마을, 한 마을보다는 여러 마을의 구성원들이 단일 무덤군에 묻힐 때 또한 그러하다.

그러한 점에서 단위마을내의 세대공동체, 단위마을 자체, 그리고 여러 마을로 이루어진 마을 복합 공동체에 어떻게 대응되는지 검토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나 모델 또한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동일지점 내에 무덤군과 인접한 마을 유구를 대응시킨 논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진안 안자천, 정자천 일대의 무덤군에 대한 시기구분과 인접한 단위지역과의 대응을 통해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그 주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사천 이금동의 군집묘에 대해서도 이러한 점에서 시기구분과 선후관계의 설정, 그리고 인접한 지역의 마을에 대응시킨 작업도 주목 할 만하다.

일정지역의 무덤에 그 집단 출신 모든 사람이 묻혔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묻혔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충분한 답이 있어야 동 집단의 사회적 성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모든 구성원이 묻힌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묻힐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가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군집묘에 속하는 각각의 무덤이 분포하는 상태에 일정한 정형성을 보이는 사례를 통하여 무덤에 묻히거나 축조한 집단의 성격을 판가름하는 근거로 삼기도 한다. 개개 무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분산 조영되는 유형, 열을 이루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조영된 유형, 열을 이루면서 서로 연접한 유형, 일정한 구획시설 내에 무덤이 조영된 유형 등 여러 사례가 있다. 이들 각각의 분포 유형에 따라서 묻힌 사람들의 상호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열을 이루거나 연접하여 군을 이루는 유형을 계열묘라고 하여 묻힌 사람들을 동일한 혈연집단의 구성원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최근에 송국리 유적의 주변무덤의 배열상태를 보아 1)종렬, 2)종렬과 이와 직교하는 방향으로의 배열, 3)일정한 형상을 갖추지 않은 단순군집으로 구분하고, 중심에서 거리가 먼 주변지역에 3)의 배열방식의 무덤군이 위치하는 것을 지적한 논문이 있다. 한편 종렬배치는 세대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혈연집단, 병렬배치는 동일세대의 혈연집단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우정연 2011).

한편 대형묘역의 지식묘가 열을 이루지 않고 군집한 사례가 마산 진동리, 산청 매촌리 등지에서 확인된다(이상길 1996, 윤호필 2009). 김해 울하리에서도 다중석개의 지하토광석곽시설을 갖춘 지식묘가 다수가 군집되어 조성되어 있었다. 이 역시 유력개인묘 다수가 시설된 무덤군이다. 역시 인근에 대형 마을 유적이 확인되지 않아 그에 대응되는 무덤으로 볼 수가 없다.

이 경우 유력한 개인 다수가 한 지점에 묻히지만, 상호 긴밀한 혈연관계를 갖춘 집단에 속한 것이라기 보다는 혈연관계에 다소 일정한 거리가 있으나 지리적으로 연접한 집단에 속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역으로 이들 피장자의 소속이 세

대공동체, 단위마을의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다수의 마을로 구성된 지역 정치체 어느 수준의 지도자인지가 문제가 된다.

일정마을과 무덤의 대응관계를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일본 구주 사가현 요시노가리에 있는 대형 환호취락과 군집묘이다(국립중앙박물관 2007). 이 유적에는 취락 사람들이 묻힌 일반 구성원의 무덤군과 유력한 개인이 묻힌 무덤군이 별개로 조성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 각 무덤마다 동검 1점씩 부장되고, 구획묘 형태의 분구묘에 군집된 상태로 매장되어 있다. 그 조성도 일정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요시노가리의 구획묘 내의 각 피장자에 대해서 일본학자들은 이른바 마을의 영웅들로 이해하고 있는 바, 그 상호 혈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 사실이 한반도 청동기시대 군집묘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겠다.

한편 일정의 지리적 범위에서 지식묘의 하위집단, 중위집단, 상위집단에 대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지식묘의 숫자와 구성을 살핀 연구가 있어 참고가 된다. 여수지역의 지식묘 사례를 꼼꼼하게 분석한 연구가 바로 그것인데, 각각의 단위집단을 표지로 하는 대형지식묘, 제단식 지식묘, 입석 등을 적절하게 내세운 것이 주목할만하다(이동희 2007).

Ⅲ. 遼東과 한반도 무덤의 교류

남한에서 지역집단 이상의 상위수준의 집단에 대한 논의는 고고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송국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유형 등으로 불리는 문화유형에 대응되는 지역집단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유사한 유적유물갯춤새를 갖고 있어 동일한 유형의 문화를 공유하게 된 동인을 살피면 지역집단 간에 인구이동이나 혼인, 단순모방 혹은 문화요소의 전파 등 다양한 수준의 과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다양한 장르의 물질문화가 공통된다면 다소나마 이들 집단 간에 상호 동질적인 집단 의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상호 지역공동체간에 일정한 중심이 있거나 항상적인 네트워크 체계가 형성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국>의 연맹체, 혹은 예맥·한 등의 종족과 관련한 설명을 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중국동북지역과 한반도에 걸쳐 동질적인 청동기 부장묘와 탁자식의 지식묘를 보유한 사례를 통하여 이를 고조선에 대응시켜 설명하는 견해가 주목된다(하문식 1999, 송호정 2003). 문제는 유사한 묘제와 청동기갯춤새를 공유한다고 하여도 각기 다른 양식의 토기군을 보유한 집단이라는 점이다. 일정한 교류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이들 지역사회간에 상호 동질적

인 집단 의식 나아가 동일한 종족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고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더 나아가 중국 동북지역과 북한 그리고 남한 지역의 청동기시대 집단 전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있는 것인가, 있다면 이를 어떤 고고학적 증거로서 설명하고, 그 교류 네트워크의 성격 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중국동북지역-한반도 네트워크가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세계체제론의 관점을 제시한 것은 중요하다. 중원지역의 문명 중심지의 영향을 받은 중국동북지역이라는 1차 주변과 다시 한반도라는 그 2차주변이라는 체계를 설정한 것은 나름대로 인정 할 만하다(이성주 2007). 그러나 그것을 중원지역의 물질문화를 중심으로 그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바, 중원이 아닌, 비중원지역, 그리고 각 지역 자체의 여러 문화요소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와 요동지역의 무덤은 성행하는 양식에 따라 크게 3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공동묘지로서 동굴묘와 적석묘가 성행하는 1기, 지석묘, 대석개묘, 석관묘가 성행하는 2기, 그리고 목관묘와 토광묘가 성행하는 3기로 구분이 된다.

1. I 기

이 단계에 요동의 하위지역별로 각기 다른 양식의 무덤이 조성되는 바, 요북지역의 太子河 유역에서는 동굴묘(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요동반도 남단지역의 적석묘가 조성되었다(朝中合同考古學發掘隊 1986).

무덤이 조성되는 입지의 차이가 있지만, 각각의 무덤이 일렬 혹은 병렬로 連接 배치되어 있어 상호 동일세대 혹은 다른 세대간의 친밀한 혈연관계임을 보여주는 공동묘지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동굴묘의 경우 한 구덩이에 1인, 기껏해야 2인정도의 시신이 안치되지만, 적석묘의 경우 將軍山이나 砬頭 무덤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의 墓穴에 10-20여명 정도의 가족 혹은 世帶共同體의 시신이 안치되는 차이가 있다. 즉 동굴묘의 단일 묘역이 적석묘에서는 단일 묘혈에 대응되는 바, 전자는 단일 혈연집단이지만, 후자는 여러 혈연집단의 무덤인 것이다.

副葬遺物은 음식저장용기로서 토제 鉢, 壺, 甕 등의 토기, 생업도구로서 掘地 혹은 별채용의 돌도끼, 방직용의 방추차, 곡물수확용의 有孔石刀, 장신구로서 석제 혹은 패각제 목걸이 등이 있다. 무엇보다도 무기가 보이지 않으므로 집단 간의 갈등이나 대립으로 인한 군사적 권위가 강조되는 사회가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 종류와 수량에 일정한 차이가 확인되지만, 집단 구성

원 간에 世帶主와 일반가족, 연령과 성별의 차이가 반영된 정도로, 그 차이가 현격하여 계층화가 진행된 族長社會²⁾ 수준으로 규정할만한 사례는 없다.

한반도에서 요동지역의 동굴묘와 유사한 혈연공동체의 묘형이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다. 또한 적석묘로 묘역 시설을 한 경우는 있으나, 요동지역의 사례처럼 단일 묘역내에 수십기의 무덤이 배치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단계에 군집묘로서 동굴묘 또는 적석묘의 묘제는 한반도에 傳播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동 시기에 한반도에 적석묘 또는 동굴묘와 같은 群集墓가 전이되지 않은 사실은 요동과 달리 다수의 혈연 집단묘를 축조할만큼 일정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체 사회가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 II 기

이 단계에 요동과 서북한지역에서 群集墓로서 적석묘, 단일묘로서 지석묘, 대석개묘, 석관묘 등의 다양한 墓形이 등장한다. 이처럼 다양한 묘형이 등장하는 배경에는 각기 다른 계통과 正體性を 가진 집단이 일정기간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동반도 남단을 중심으로 전 단계부터 조성된 적석묘는 이 단계에 들어와 그 기본 묘형은 유지하면서 단위무덤의 구조나 배치패턴을 달리 하는 다른 형식으로 발전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旅順 崗上墓로서, 기본묘역이 조성된 후 소규모 묘역이 부가된 것으로 20여기의 무덤이 포함된다. 중심에 배치된 무덤 3기만 바닥에 판석을 깔았을 뿐 대부분 토광무덤이다. 한 구덩이에 적은 경우는 2-3명, 많은 경우는 18명의 화장된 뼈들이 묻혀 있어, 多人葬 풍습의 전단계 전통을 계승한다(朝中合同考古學發掘隊 1986).

같은 단계에 다수의 무덤이 連接하여 배치된 사례는 한반도에서도 확인되고, 그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최근에 발굴된 100기가 넘는 무덤이 연접된 여수 月內洞의 지석묘를 들 수 있겠다(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9). 또한 큰 적석 묘역 혹은 구획을 갖춘 지석묘가 김해, 진주, 마산, 산청, 밀양 등지에서 다수 확인된 바 있다. 그것을 구획묘라는 이름으로 양 지역간의 묘제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긍정하지만(안재호 2010), 한반도의 경우 한 묘역에 한 무덤이 시설되고 있는 점이 요동지역의 그것과 다르다. 따라서 요동반도의 崗上型의 적석묘와 같은 묘형은 압록강 이남의 한반도로 전이된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동 무덤에 부장된 토기형식이 전 단계 雙磁子 3기의 양식을 계승하고 다른 지역으로 거의 전이되지 않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경기도지역에서 석곽묘에 화장한 인골과 비파형동검이 부장한 사례를 들어 강상의 그것에 연

2) chiefdom society 중 이른 단계의 사회를 초기 군장사회 혹은 족장사회, 늦은 단계는 후기군장사회를 군장사회라고 잠정적으로 명칭을 정하고자 한다.

결시키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는데, 그것은 다인장묘가 아니고, 강상의 토기양식이 거의 전하지 않는 사실로 미루어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어렵다. 또한 횡대구획문의 무문토기가 요동반도 남단의 토기와 연결된다고 하나(배진성 2007),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것은 아니므로 그 전이과정에 대한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는 달리 지식묘의 경우 요동과 한반도 지역에 유사한 모형이 존재한다. 잘 알려졌다고 피요동은 물론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지식묘는 그 숫자가 많고 형식도 다양하다.³⁾ 그중에서도 탁자식의 지식묘는 요동지역에서 적석묘가 집중분포되는 요동반도 남단을 제외하고, 遼北 지역의 渾河 상류, 요남지역의 大清河, 碧流河와 大洋河 유역에 분포한다. 그중에서 支石 높이가 2-3m에 이르는 대형의 지식묘는 蓋州 石棚山, 石棚峪, 大石橋, 海城 析木城, 瓦房店 台子 등 遼東灣 지역에 집중된다(華玉冰 2008).

한반도의 경우 탁자식 지식묘는 서북한 지역 중 대동강 유역에 집중되고, 남쪽으로 한강유역과 강화도에 일부 확인된다. 그중에서 높이 3m가 넘는 안악 노암리, 은물 관산리, 연탄 오덕리 송신동 등의 대형의 지식묘 또한 대동강 하구 혹은 서해안 인근에 분포한다(석광준 2002).

이처럼 요동과 서북한지역에 동일한 형식의 탁자식 지식묘가 축조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번째는 上石의 크기로 보아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동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조직력이 지원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점에서의 설명이다. 앞선 시기에 무덤유적은 그 대부분이 혈연집단의 공동묘지로서 단일묘광간의 규모 차이가 크지 않아, 구성원간의 신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단계에 들어서 단일무덤의 규모에서 분명한 차이가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늦은 단계의 것으로 추정되는 五德型의 탁자식 지식묘 중에 상석의 크기가 7-8m에 이르는 대형의 사례가 주목된다. 그 노동력은 군사력이나 무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에 보겠지만 탁자식 지식묘에서는 戰士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동검이 부장되는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3) 남북한, 중국 각 연구자의 분류안은 당사자들이 직접 조사한 지역의 지식묘를 근거로 하므로 형식분류상에 다소 차이가 있다. 중국연구자들은 석봉묘와 대석개묘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최근에 이에 적석묘역을 부가한 사례를 별도로 위절형 혹은 정석형을 따로 설정한 견해가 있다. 북한에서는 오덕형, 침촌리형, 묵방리형으로 구분하는데 석봉묘에 대응하는 오덕형, 정석형의 대석개묘를 묵방리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적석묘역에 다수의 석관형 지식묘가 배치된 형식을 따로 떼내어 침촌형으로 분류한다. 남한에서는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묘역식으로 구분한다. 탁자식은 석봉묘, 오덕형에 대응되고, 개석식은 대석개묘에 대응되며, 그리고 최근에 많이 조사된 묘역식 지식묘는 묵방리형, 정석형 대석개묘에 대응된다 하겠다. 괴석상의 낮은 지식묘로 고인 바둑판식이 남한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바, 이를 별도의 형식으로 구분하는 점이 중국, 북한 연구자들의 분류체계와 차이가 난다. 이러한 모형의 선후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 바, 단순히 외형상의 구조로만 보면 상석이 없는 지하 석관묘에서 상석이 지상에 드러난 개석식, 나아가 상석은 물론 판석모양의 지식까지 지상에 드러난 탁자식 지식묘로 발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모형이 생성하는 지역이 각기 다르고, 부장되는 토기의 형식 또한 달라서 그 선후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오히려 발굴조사를 통해서 일정 지역에서 동일한 형식의 토기와 청동기가 공반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각기 다른 모형이 상호 시간적 계승관계가 아니라 병존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더 많다.

두번째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형식이 유사한 각기 다른 지석묘는 이를테면 동일한 방식에 의해 동일한 형태로 축조된 遼南 서부지역의 蓋州 石棚山과 서북한 남부의 황해 관산리의 지석묘의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단 양 지역에 각각 다른 유형의 토기갓춤새가 성행하므로 각기 다른 인구집단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설명함이 옳다. 그렇지만 동 지석묘의 석재 가공과 운반, 조립과정이 단순하지 않아 간접적인 모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어떠한 動因에 의해서든 축조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의 이동이나 상호방문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된다.

석관묘는 지하에 장방형 토광을 파고 벽체의 시설을 板石 또는 割石으로 축조한 것이다. 상부를 덮는 뚜껑돌은 여러 개의 판석으로 하는 경우, 1개의 대형판석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요북지역의 석관묘와 유사한 예가 서북한은 물론 남한지역에서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비파형동검을 같이 부장한 판석조 석관묘로서 遼北 지역에 西豐 誠信村, 撫順 大甲房 그리고 서남한지역에서는 부여 송국리의 사례가 있다.

뚜껑돌이 지하에 묻힐 경우 전형적인 석관묘에 속하지만 두터운 1개의 뚜껑돌이 지상에 드러날 경우 대석개묘가 된다. 요동지역의 大石蓋墓는 지하매장시설을 板石造 석관, 割石造석관 그리고 토광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할석조인 것은 요북지역의 本溪 新城子, 판석조인 것은 岫岩 雙房, 토광형은 鳳城 東山의 사례가 있다. 이러한 대석개묘는 매장시설 주변으로 적석이 부가된 사례가 요북지역과 서북한 지역에 공통적으로 분포한다.

서북한 지역에 개천 묵방리의 개석식 지석묘에는 요북지역의 개석묘에 부장된 미송리형토기와 유사한 묵방리형토기가 부장된다. 이러한 요동과 한반도의 무덤과 토기의 형식, 그리고 청동기의 공반관계를 살펴보면 앞서 보듯이 미송리형토기와 비파형동검이 확인되는 무덤은 대석개묘 혹은 석관묘라는 점이 주목된다. 탁자식 지석묘에서 발견되는 유물과 차이가 있는데, 요남지역의 蓋州 伙家窩堡 1호에서 이중구연토기와 장경호, 普蘭店 雙房 2호의 짧은 목의 단지형 토기이며, 서북한지역의 탁자식 지석묘에서도 팽이형토기만 부장되었을 뿐이다.

3. III 기

비파형동검 후기에 들어오면 지상에 上石 혹은 支石을 갖춘 대형 구조물 형식의 무덤 대신 지하에 토광을 파고 매장시설을 만든 토광묘, 목관묘, 목곽묘가 중심 묘제로 등장한다. 우선 遼北 지역의 경우 沈陽 鄭家窪子에 이 시기에 해당하는 다수의 무덤군이 확인된다. 그중에서 우두머리급 무덤인 6512호 묘는 토광 길이 5m, 폭 3m, 목곽 길이 3.2m, 폭 1.6m의 木槨墓이며, 인접한 다수의 무덤은 규모가 작은 토광묘이다(瀋陽故宮博物館 1975). 遼陽 亮甲山에서는

7기의 무덤이 조사되었는데 모두 토광묘로 확인되었다.

遼南 지역의 경우 庄河 上馬石에서 변형 비파형동검과 초기 세형동검이 부장되거나 그와 같은 시기에 속하는 10여기의 무덤이 목관묘 혹은 토광묘이며, 海城 大屯의 초기세형동검 부장 무덤 또한 토광묘 혹은 목관묘로 추정된다. 요동반도 남단에서 초기 세형동검이 부장된 尹家村 12호묘의 경우 埋葬主體部 주위로 돌들이 둘러 있지만, 앞서 석관묘와 다른 토광묘 혹은 목관묘로 이해되며, 海城 卽周墓 또한 그러하다.

요동 지역에서 이처럼 지상에 표석이 없는 무덤을 축조하게 된 것은 막대한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기념비적 건축물을 더 이상 威勢의 상징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다량의 청동기를 부장하는 무덤의 양식이 이처럼 소규모의 단순한 무덤시설을 채택하는 것은 요동 이외의 외부 영향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요서지역에서는 기원전 2천년기 夏家店下層文化 단계부터 목관, 목곽묘가 성행하였고 다량의 청동기를 부장한 夏家店上層文化와 十二臺鬻子文化에 속하는 무덤이 그러한 바 그러한 무덤양식이 轉移된 것으로 볼 수 있다(오강원 2006, 송호정 2010).

한반도로 내려와 서북한지역의 경우 황해 정봉리의 세형동검을 부장한 무덤도 깊게 판 토광에 목관을 안치하고 돌을 쌓은 목관묘인 것이다. 서남한지역의 경우 전기 세형동검과 다량의 청동유물이 부장된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 예산 동서리 무덤유적 또한 모두 깊은 토광에 목관을 안치한 적석목관묘이다. 동남한에서도 후기 비파형동검을 부장한 김천 문당리의 예 역시 목관묘인 것이다(경북문화재연구원 2008).

요동에서부터 한반도 전역에 걸친 이러한 목관묘의 轉移는 다음에 보다시피 동일한 토기갖춤새가 함께 보급되는 사실로 보아 상당한 인구 이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것은 옹관묘가 主墓制인 일본 九州 지역에서 점토대토기갖춤새와 함께 積石木棺墓가 등장하는 사실에 비견된다.

그러나 전 단계에 유행하였던 적석묘, 대석개묘, 석곽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요북지역의 경우 보다 늦은 세형동검이 부장된 3기의 本溪 上堡村 무덤이 할석조 석관묘인 것이다(이청규 2000). 또한 요동반도 남단의 樓上과 臥龍泉 무덤도 이 시기 유물을 부장하는 적석묘이다. 서북한 지역에서 후기 비파형동검과 초기 세형동검을 각각 부장한 평양 신성동, 서흥 천곡리 무덤 또한 할석조 석관묘이다.

요동에서 벗어나면서 그에 가까운 松花江이나 渾河 상류지역에서는 대석개묘나 석관묘가 더욱 성행하며, 한반도의 경우 또한 최남단으로 가면 지하의 매장시설이 더욱 복잡해지는 多重蓋石式 지석묘가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준다(윤호필 2009).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돌무

덤의 전통이 오래 유지되는 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다(우연정 2011).

IV. 무덤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

1980년대 이후 청동기시대 사회를 설명하는 틀로서 신진화론과 마르크스 사회발전단계론이 있는데, 남한에서는 전자, 북한에서는 후자가 집중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북한에서는 대형 상석을 갖춘 관산리식 지석묘를 근거로 노예 소유제사회로 설명한 바 있다. 물론 대형 상석을 운반 조영함에 엄청난 노동력이 강제적으로 동원된 것이며, 그들의 신분이 노예라는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약점이다. 이집트의 대형 피라미트를 축조함에 동원된 인력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동원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참고하면 그러한 노예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상석 아래에 11여기의 피장자 공간이 마련된 평남 성천 통산리 지석묘가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상석아래에 수십여명의 피장자들이 동시에 매장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순장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상석이 두께가 얇은 판석형이고 개폐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매장부분 전면을 덮은 것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순장의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석광준 2002: 364-366). 설혹 동시 매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막바로 순장이라고 주장하기까지는 여러 증거가 입증되어야 한다.

신진화론은 잘 알려지다시피 민족지사례를 근거로 band-tribe-chiefdoms-state 순으로 인류 사회가 일반진화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남한에서는 그 중 chiefdoms을 족장사회라 하여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호남지역의 지석묘 사회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활성화된다(Choi Mong-lyong 1984). 다른 한편에 한국 원시고대사회에 chiefdoms를 군장사회라 하여 문헌기록에 근거하여 삼한의 소국 사회에 적용시킨 사례가 있었다(김정배 1985: 145-148). 이 두 의견을 정리하면 결국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서 축조한 지석묘와 다량의 청동기를 부장한 적석목관묘 중 어느 무덤의 주인공이 chiefdoms에 해당하는가 하는 상반된 주장이 양립하게 되고, 이에 대한 논쟁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것이다(유태용 2003). 이러한 사회발전단계론은 문자그대로 일반진화론적 성격의 것이어서 지역마다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한반도의 사례에 적용하였다면 그 근거와 대상을 시공간적으로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일정한 시기별로 고고학적 사실과 맥

락을 토대로 설명되어야 한다. 처음 제기된 족장사회론이 영산강유역의 지식묘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그렇지 못하였다. 실제 이러한 지역단위별로 사회의 변천과정을 해명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또한 학계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남한 각 지역의 지식묘 변천과정을 4기로 나누어 1기에 세대공동체의 리더가 안치된 독립묘, 2기에 무덤이 군집을 이루거나 연접하는 현상을 보이고 유아묘의 등장을 통해 유력 세대공동체 혹은 출계집단이 형성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3기에 일정군집묘의 경우 묘역이나 상석의 규모가 확대되고, 다른 무덤의 경우 소형화되는 차별화 현상을 근거로 위계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4기에 거대한 묘역과 다중개석의 개인묘가 등장하여 유력한 개인묘로 판단되고, 이를 근거로 족장사회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김승옥 2004). 이러한 설명은 지식묘집단이 시기를 달리하여 일정한 사회적 변천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입증하는 점에서 진전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4기의 지식묘 사회가 족장사회라 하더라도 이는 비슷한 시기에 남한지역에 다량의 청동기를 부장한 세형동검무덤의 축조집단이 장거리 교역을 통해 위신재를 획득하는 개인성향의 족장이 통솔하는 사회라 하는 것과 달리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여 거석기념물을 축조집단성향의 족장사회라 설명하는 것도 주목할만하다(김승옥 2007 : 101-116).

한편 지식묘축조집단을 족장사회로 설명하는 데 신중한 입장도 있다. 족장사회를 수장사회라 이름하고 수장의 존재를 인정하려면 그 지위가 제도화되고 세습되어야 하는 바 지식묘는 그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송국리 52지구의 비파형동검 부장 석관묘는 물론 창원 덕천리 1호묘와 같은 대형 묘역의 지식묘가 단독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세습되었다고 보는데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박양진 2006: 12-20).

지식묘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의 부장유물과 무덤시설은 계층사회에서의 수직적 계층화가 아니라 평등사회에서 볼 수 있는 수평적 차별화로서, 연령과 성별 차이에 따른 신분의 분화를 입증하는 정도의 수준일 가능성을 배제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판단은 청동기시대 집자리와 마을 유적에서 더욱 본격적인 사회적 계층화의 증거를 확실하게 제시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평등사회에도 그 말기에 등장하는 Big man과 같은 지도자가 있으며, 지식묘의 상당수 피장자가 마을의 우두머리라 하더라도 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양자의 의견을 조정하면 남한의 지식묘축조집단은 평등사회에서 계층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 단계에 위치하며, 그 무덤에 묻힌 사람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개인성향의 지배자로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집단성향의 지배자로서 chiefdoms의 chief라 하더라도 아직 그 면모

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실력자라고 하겠다.

족장사회, 계층사회로의 이행을 입증하는데 실력자의 지위가 당사자에게만 인정되는 획득 지위인지 아니면 후손에게도 세습하여 인정하는 귀속지위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자임을 인정받으려면 일정 개인만이 아니라 혈연관계에 있는 다수의 무덤에 다량의 유물을 부장하거나, 무덤규모를 크게 한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부장유물이나 무덤 규모에서 차별화된 유아묘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단순히 지식묘에 유아묘가 조성되었다고 보는 사례만으로 세습화된 귀속지위라고 판정하기 어렵다.

한편 신진화론의 틀 속에서 계층사회의 발전에 대해서 갈등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통합에 중점을 둔 설명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경청할만하다. 지도자의 시신을 매장한 무덤을 대형구조물로 구축한 것은 집단 내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통합의 의미가 강하다고 설명한다(김종일 2007: 162). 이 또한 지식묘사회가 공동체 성향의 사회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관점에서라면 결국 하위 지역집단은 물론 상위지역집단의 어느 수준까지 통합의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세대공동체-농업공동체-지역정치체의 삼단계의 개념을 야요이시대의 마을 유적에 적용시킨 일본 학계의 사례가 주목된다(Kenichi Sasaki 1999: 331-336). 실제로 그러한 일본고고학의 접근방법이 남한지역의 연구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여러 학자들이 유사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삼단계 사회단위를 설명하는 기본 틀은 각각의 단위사회를 통합하는 중심 단위의 설정에 있다. 농업공동체이면 중심촌락, 지역공동체이면 하위의 농업공동체, 중심촌락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리고 중심과 주변의 상호네트워크를 무엇으로 입증하는가에 있다.

이와 유사한 논의로 삼한관계 기록에 국, 읍락, 촌에 대응되는 마을과 무덤유적, 그리고 시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이 있다. 무엇보다도 3세기 기록에서 설명한 <국> 정치체에 대한 논의를 그 이전의 지역정치체에 적용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전남 여수의 지식묘군에서 비파형동검을 부장한 무덤의 사례가 일정한 군집묘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그림9)을 근거로 이 일대에 국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武末純一 2002).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기원전후한 시기의 문헌에 처음 등장한 한반도 남부의 <국>의 기원이 기원전 1천년 전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 된다.

이러한 주장은 <국>의 성립은 기원전 3-2세기경 이후라고 설명하는 고대사학자들과 다뉴강 등의 다량의 청동기부장묘를 근거로 설명한 고고학자들의 관점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이청규 2000). 이 때 <국>의 개념에는 우월한 중심집단과 그 주변집단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 바, 문

제는 중심 촌락 혹은 국읍의 설정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국>은 수백호에서 수천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므로 그 <국>의 개념을 동일한 기준을 내세워 설정할 필요가 없다. 고고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하더라도 각 단계마다 그 국의 구조와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일정한 지리적 범위에서 지식묘군의 군집상을 정리한 것이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으며(이동희 2007), 늦은 단계이기는 하나, 최근에 완주-전주의 혁신도시 부지내에 다뉴경 부장묘가 십 여기 이상 확인되고, 6-7개의 군집묘가 근거리를 두고 위치한 사례 또한 좋은 참고가 된다(호남문화재연구원 2011.)

V. 맺음말

청동기시대의 남한지역 사회를 설명하려면 비파형동검등의 청동기를 공유하고, 동일한 형식의 지식묘, 석관묘, 적석묘를 축조하는 중국동북지역, 북한과 연계된 광역적 영역에 걸친 사회네트워크의 맥락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무덤자료를 통해 요동과 한반도 지역의 교류와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하였다. 그러나 양 지역간의 교류를 다룸에 쌍방의 상호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요동에서 한반도로의 일방적 전이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한반도에서 요동지역으로의 물자 전이가 전혀 없었으리라고 생각될 수 없지만, 실제로 그러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남한지역 사회를 접근할 때 이른바 문화유형으로 규정되고 이를 공유하는 각 하위지역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 주목되지만, 아직 이에 대한 모델과 방법론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하천이나 곡간의 자연지리적 경계를 공간적인 범위로 한 각 하위지역의 집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편으로, 이를 지역정치체, <국>, 혹은 <읍락> 또는 족장, 군장, 수장사회의 이름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지도자 혹은 실력자의 등장을 무덤시설과 그 부장유물을 통해서 고고학적으로 가장 많이 설명되고 있다. 이들 무덤을 구성하는 양자의 속성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여 무덤의 주인공이 우월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세습화되고 귀속적이라기 보다는 집단성향의 획득적인 지위를 보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원전 1천년기 중반 이전의 남한 청동기시대 사회에 대해서 족장사회 혹은 계층사회, <국>의 초기적 특징을 갖는 사회

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다.

한편으로 이들 지역 공동체 이상의 사회를 구성하는 취락 내에 다양한 잣대로서 위계화의 증거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그러나 대형취락 혹은 중심취락에서 그러한 증거가 일부 찾아지지만, 대부분의 취락에서 그러한 위계화 현상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마을을 구성하는 세대공동체와 가족에 대해서 주거지와 관련한 많은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에 대해서도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 경북문화재연구원, 2008, 『김천 문당동유적』
- 국립중앙박물관 2007, 『요시노가리: 일본 속의 고대한국』
- 김권구, 2005, 『청동기시대 영남지역의 농경사회』, 학연문화사
- 김승옥, 2004, 「용담댐 무문토기문화의 사회조직과 변천과정」, 『호남고고학보』 49, 5-45.
- 김승옥, 2006, 분묘자료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사회조직과 변천, 계층사회와 지배자출현, 한국고고학회 편, 한국고고학술총서 3.
- 김종일, 2007, 「‘계층사회와 지배자의 출현’을 넘어서」, 『한국고고학보』 53, 한국고고학회, 150-175
-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09, 『여수 GS칼텍스공장 확장예정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 박양진, 2006, 한국 지석묘사회 ‘족장사회론’의 비판적 검토, 호서고고학 제14집, 호서고고학회, 5-24.
- 배진성, 2007, 『무문토기문화의 성립과 계층사회』, 서경문화사
- 석광준, 2002, 『조선의 고인돌무덤 연구』, 사회과학원, 도서출판 중심
- 송호정, 2003, 「한국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 송호정, 2010, 「요서지역 하가점상층문화 묘제의 변천과 주변 문화와의 관계」,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안재호, 2010, 「한반도 청동기시대 문화의 기원과 전파」, 『청동기시대의 울산태화강문화』, 울산문화재연구원.
- 오강원, 2006, 『비파형동검문화와 요령지역의 청동기문화』, 청계
- 우정연, 2011, 「금강중하류 송국리형무덤의 거시적 전통과 미시적 전통에 대한 시론적 고찰」, 『한국고고학보』 79
- 유태용, 2003, 『한국 지석묘 연구』, 주류성
- 윤호필, 2009, 「청동기시대 묘역지석묘에 관한 연구」, 『경남연구』 1
- 이동희, 2007, 「支石墓 築造集團의 單位와 集團의 領域」, 『호남고고학보』 26
- 이상길, 1996, 「청동기시대 무덤에 대한 일시각」, 『석오 윤용진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 이성주, 2007, 『청동기·철기시대 사회변동론』, 학연문화사
- 이영문, 2002, 『한국 지석묘 사회연구』, 학연문화사
- 이청규, 2000, 「요령 본계현 상보촌출토 동검과 토기에 대하여」, 『고고역사학지』 16, 동아대학교박물관
- 이청규, 2000, 「국의 형성과 다뉴경부장묘」, 『선사와 고대』 14
- 이청규, 2010, 「신석기-청동기시대의 요서지역 무덤의 부장유물과 그 변천」, 『요하문명의 확산과 중국 동북지역의 청동기문화』, 동북아역사재단, 17-96쪽

- 이형원, 2009,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경문화사
- 이희준, 2011,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영남고고학보』 58.
- 이홍중, 2005, 「관창리취락의 경관」,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사회의 문화체계』, 고려대학교 고려
환경연구소
- 하문식, 1999, 『고조선지역의 고인돌연구』, 백산자료원
- 호남문화재연구원, 2011,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사업(III구역) 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완주 신
풍유적2차 현장설명자료』
- 쇼다 신야, 2009,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 사회』, 학연문화사
- 內蒙古自治區文物考古研究所外, 2009, 『小黑石溝-夏家店上層文化遺址發掘報告』, 科學出版社
- 瀋陽故宮博物館, 1975, 「瀋陽鄭家窪子的兩座青銅時代墓葬」, 『考古學報』 1975-1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本溪市博物館, 1994, 『馬城子-太子河上遊洞穴遺存』, 文物出版社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鐵嶺市博物館, 2011, 「요령 서풍현동구유지급묘장발굴간보」, 『考古』 2011-
5, 31-50쪽
- 朝中合同考古學發掘隊, 1986, 『崗上·樓上-1963~1965 中國東北地方遺跡發掘報告』, 六興出版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8, 『大甸子-夏家店下層文化遺址與墓地發掘報告』, 科學出版社
- 華玉冰, 2008, 「中國東北地區石棚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 都出比呂志 1989, 『日本農耕社會の成立過程』, 岩波書店, 東京
- 武末純一 2002, 「요령식동검묘와 국의 형성」, 『청계사학』 16·17 합집
- 宮本一夫 2000, 『中國古代北疆史の考古學的研究』, 中國書店
- Choi Monlyong 1984, A Study of the Yongsan River Valley Culture: The Rise of
Chieftdom Society and State in the Ancient Korea, Dongsongsa, Seoul
- Kenichi Sasaki 1999, A History of Settlement Archaeology in Japan, JOURNAL OF
EAST ASIAN ARCHAEOLOGY, VOL1-4, Brill, 325-352